

위기의 기아차 광주공장

주력 '스포티지' 苦戰... 경영실패 아닌가

스포티지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연간 생산되는 5개 차종 36만여대 가운데 15만대를 차지하는 주력차종으로 꼽힌다. 그러나 국내외 시장 위축과 함께 생산라인 증설보류 등으로 위기에 봉착, 적지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고전하는 스포티지=2004년 8월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통해 소형 SUV 시장을 석권했다. 스포티지는 지난해 5만7천31대가 팔려 국내시장의 56.6%를 점유, 3개월 먼저 출시된 투싼(4만3천778대·43.4%)을 앞도했다. 지난해 수출실적은 10만3천666대로, 내수의 두 배에 달했다.

그러나 고유가, 환율하락, SUV의 세계 강화, 경쟁제품의 출시 등 국내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외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여기에다 재고물량이 늘어나자 할인판매 전략을 채택한 투싼의 추격, 후발 SUV인 쌍용 액티온·대우 윈스톤의 출시로 스포티지는

내수 위축...수출은 늘었지만 채산성 악화 생산라인 증설 미뤄 노조와 53일째 대립

포티지의 점유율이 급락하고 있다.

올 1~9월 국내 SUV 시장점유율은 투싼 38.2%(2만5천501대)에 이어 스포티지 37.1%(2만4천731대), 액티온 13.4%(8천956대), 윈스톤 11.2%(7천497대) 순으로 재편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같은 기간 수출실적은 8만9천105대로 지난해 동기대비 23% 늘었으나, 환율하락으로 인해 채산성은 되레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포티지의 성공신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사가 합심해 고품질 차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생산라인 증설 '갈등' =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는 '스포티지 생산라인

광주공장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20만대(현재 15만대) 생산체제를 확보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증설 작업은 올해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환경이 바뀌면서 스포티지 판매고가 급감하자, 사측은 '2공장 증설 당분간 보류방침'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노조측은 8월말 광주공장 본관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가 19일 현재 53일째를 맞고 있다.

노조측은 "시장환경에 따르자면 스포티지 뿐만 아니라 다른 차종의 시장점유율도 동일한 비율로 축소돼야 하는데 왜 스포티지만 급락하고 있는가"라고 의문

을 제기하며 '2공장 스포티지 전장을 제시하라'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남일 공장장은 "불필요한 추가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광주공장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노사간 감성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생산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협력업체도 위기=기아차 광주공장의 협력업체는 150여개, 6천300여명에 달한다. 1차 32개 400명, 2차 135개 3천300명, 3차 80개 1천600명 등이다.

스포티지의 위기는 광주공장을 넘어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협력업체 대부분은 광주공장의 스포티지 생산에 맞춰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추가로 생산인력을 확보했으나, 스포티지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부품납품액이 줄어 이같은 투자는 역효과가 되고 말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韓-美 FTA 해법 불꽃 설전

해남·진도 보선 후보자 토론회

19일 오전 KBS 목포방송국에서 열린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선관위 초청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선거전에서 떠오른 쟁점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특히 열린우리당 박양수 후보와 민주당 채일병 후보는 ▲한미 FTA ▲채일병 후보의 우리당적 보유 여부 ▲민주당과 우리당의 정체성 등을 놓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여 분위기가 후끈 달아 올랐다.

토론회 초반 후보별 기조연설과 사회자의 공통질문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조성과 친환경농업 육성, 노인복지 등 지역개발에 관한 후보별 답변에서는 별다른 쟁점없이 막바진 분위기였다.

그러나 개별질문부터 열기가 뜨거워졌다. 우리당 박양수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설철호 후보는 "정부 여당이 나중에 써야 할 상

카드를 미리 노출했다", 채일병 후보는 "국민 전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우리당 사무처장 출신인 박양수 후보는 채일병 후보의 우리당적 보유 여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박 후보는 "채 후보가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당원이었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채 후보는 "당적부에 기재되지 않았고, 당비도 내지 않았으므로 당원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며 부인했다.

또 박후보가 선거전 초반 터진 돈봉투 사건에 대해 채 후보를 겨냥하며 "1주일이 지났으면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고 공격하자, 채 후보는 "사법당국이 밝히겠지만 깨끗하고 투명하다. 음해공작설도 있다"고 응수했다.

채후보가 민주당과 우리당의 분당에 대해 "우리당이 깨고 나간 것이 잘못이며 반성하고 되돌아오면 통합되는 것"이라고 공격하자 박 후보는 "개혁을 위한 21세기 정치문화목표 달성을 위한 뜻이 컸었다"고 주장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낙후 신안 내가 살리겠다" 한 목소리

신안군수 후보 토론회

19일 목포 문화방송에서 열린 신안군수 재선거 후보자 선관위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낙후 지역인 신안을 살리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추첨에 의해 최영수(민주당) 후보를 필두로 강성만(무소속), 박우람(무소속), 이준식(무소속), 최신웅(무소속), 김영식(한나라당) 후보 순으로 기조연설했다.

지역 농수산물 유통 및 판로확보대책을 묻자 강성만 후보는 지역 농수산 명품브랜드를 만들고 국정홍보처 근무 경력을 살려 직접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박우람 후보는 24시간 농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으로 제 값 받기에 노력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이준식 후보는 경제작물을 집중 육성하고 유통구조 및 시설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인 섬개발 전략과 주민소득 격차 개선 방안을 묻자 최신웅 후보는 부두 집안시설을 확충하고 조선소와 풍력, 태양광 발전소 유치로 통해 개발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김영식 후보는 '다이아몬드 제도' 개발에 노력하고 체류형 관광 상품 발굴로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최영수 후보는 자신이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 전문가임을 자임하고 국제규모 소금축제, 'DJ마라톤대회' 등 이벤트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이명박 '경인운하 건설' 현실성 전혀 없다"

주승용의원 국감서조목조목 지적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여수·울진)이 19일 한 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부운하 건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눈길을 끌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해발 2m의 낙동강에서 해발 210m의 산악을 오르내려야 하는 경부운하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라며 "운하는 해운

이 불리한 유럽 내륙에서 활용되는 것이며 3면이 바다로 이뤄져 해운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운하건설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지난 98년 수자원공사에서 경부운하 건설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경부운하의 건설은 기술·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나 이명박 전 시장은 경부운하 건설 계획을 마치 경제발전의 큰 성장동력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윤영월(왼쪽) 광주서부교육장이 국감이 끝난 직후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있다.

위척기자 jwii@kwangju.co.kr

교육장 폭언 파문 정회 소동

광주·전남교육청 국감 이모저모

19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작심한 듯 신설학교 비리 등 광주 교육 현안에 대해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을 거세게 물아 불었다.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장도 표적이 됐다. 윤 교육장은 수차례 증인석으로 불려나와 신설학교 납품비리를 고발한 광주S중 박모(59) 전 교장에 대한 인사청탁 및 급식업체 선정 압력행사 의혹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을 받았다.

윤 교육장에 대한 질타는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 질의 때 극에 달했다. 김 의원은 박 전 교장 측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박 전 교장과 윤 교육장의 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을 일부 공개하며 큰 목소리로 윤 교육장을 물아 불었다.

윤 교육장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하자 국감 장소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내뱉는 현정 사상 조주의 사고를 불렀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피감기관서 맨 뒤에 있는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간 직후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려는 순간, 'x놈의 x×'라는 욕을 혼



잣말로 내뱉고 만 것.

이에 임 의원은 즉각 질의를 멈춘 채 경색된 얼굴로 "누구요. 누가 욕설을 했느냐"고 발언자의 자진 해명을 촉구했고, 감사반장인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5분 만에 서둘러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감사반은 국감장 내부에 설치된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범인 색출'에 나섰다. 윤 교육장이 욕설한 사실이 드러나자 회의를 속개하고 윤 교육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해명을 요구했다.

윤 교육장은 "국회나 국감 위원들에게 내뱉은 욕설이 아니고 (아무런 근거 없이) 학교 납품 비리를 제보한 사람을 가리켜 '못된 사람들'이라고 욕했으며 'x놈의 x×'라는 욕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의원들이 "증인 신분인 피감기관 공무원이 국감장에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발언 내용까지 속이려 한다"며 "이는 현정 사상 조주의 일이자 명백한 국회 모독행위"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의원들은 전남도교육감실에서 김원본 광주시 교육감과 함께 속기사 녹음 내용 확인을 통해 윤 교육장이 욕설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윤 교육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폭언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광주교육가족에게 사과드린다"면서 "교육감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해 일시 감정 자제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 교육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황태기자 hwangt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car,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dark sedan and the text 'FIVE HUNDRED' and '세고와 만나는 만능의 더 특별한 집니다'.